

문학작품 더 깊게 읽고 더 많이 즐기기

교수처럼 문학읽기

토마스 포스터 지음, 손영미·박영원 옮김



문학의 문법을 알면 문학 속 숨은 의미가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문학은 해독하기 어려운 지도와도 같다. 작가의 사상, 시대상황, 문학적 전통 등 복잡하게 얽힌 변수는 작품의 실체에 다르다는 것을 방해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나 소설에는 인물의 유형, 플롯의 리듬, 시점의 제한 등 일반적인 '관습'이 나타난다. 운율 장르 또한 마찬가지다. 운율, 구조, 형태 등처럼 특유의 '관습'이 있다. 마찬가지로 희곡에도 무대, 연출 등과 같은 나름의 방식이 작동한다.

분명 작품마다 고유의 '관습'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상의 맛과 수준이 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자는, 가령 소설을 읽을 때 줄거리와 등장인물에만 집중한다. 어떤 독자들은 작품의 감정적인 차원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도 한다. 많은 작가들 또한 책이 출간됐을 때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공감하거나 줄거리로 매료되기를 바란다.

문학의 일반 문법과 함께 독서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미시간대 영문과 교수인 토마스 포스터가 펴낸 '교수처럼 문학읽기'는 문학 애호가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이다.

'작가는 굳이 말하지 않았고, 독자는 달리 알 길이 없었던 문학 속 숨은 의미 찾기'라는 다소 긴 부제가 인상적이다. 작품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비결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문학 전공자와 일반 독자 사이에 놓인 벽 허물



중세의 서사시 '베어올프'(8세기)에 등장하는 '그렌델'은 일반적으로 괴물이지만 다양한 뜻을 함의한다. '인간에 대한 우주의 적대성', '인간성의 어두운 측면'으로도 해석된다.

기로 볼 수 있다.

컬럼비아 대학 제임스 사피로 교수는 "훌륭한 교수와 함께 문학을 읽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토록 실감나게 보여준 책은 없었다"며 "정말 유용하고 통찰력 넘치는 이 책에서 토마스 포스터는 전문가와 일반 독자들을 갈라놓는 해묵은 벽을 허물고 있다"고 추천한다.

저자는 문학교수를 비롯한 전공자들은 줄거리나 감정적 차원을 넘은 다른 요소에 관심을 쏟는다고 강조한다. 이 작품의 감정적 효과는 어디서 올까? 등장 인물은 누구와 비슷한가? 이런 장면들 전에 본 적이 있단가? 등의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타터 지바고'(1957)를 읽고 어떤 학생들은 등장인물 이름 외우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베테랑 독서가는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대신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패턴이나 상징, 원형 등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또한 상징적 의미를 머릿속에 두면서 책을 읽는다고도 강조한다. 중세의 서사시 '베어올프'(8세기)에 등장하는 '그렌델'은 일반적으로 괴물이지만 다양한 뜻을 함의한다. "인간에 대한 우주의 적대성", "인간성의 어두운 측면"으로 해석된다는 의미다.

이밖에 코드와 이미지, 기억을 매개로 작품을 읽는 법도 소개한다.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 '가든파티'는 계층과 계급 제도의 모순에 대한 자각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야기의 줄거리와 주제, 페르세포네 신화와 겹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주인공이 고전 문학에서 말하는 지하 세계이자 이들의 영적인 저승(하데스)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듯 저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한편으론 다른 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문학의 '관습'과 '문법' 장치를 읽는 데 치중하다보면 본래 문학이 지닌 맛은 감소되지 않을까 싶다.

〈이루·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수학자의 공부= '수학자의 공부'(원제 춘소심화(春宵十話))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대를 이어 읽히는 책이다. 단 순한 '지적 에세이'를 넘어 통찰력으로 무장한 '인문서'로, 인문서를 넘어 '현대인의 필독서'이자 '빛나는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책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재 수학자의 학문과 인생에 관한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고,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공부의 본질'에 대한 대가의 명쾌한 대답을 담았다.

〈사람과나무사이·1만3000원〉

▲검은 동테크리스토= 주인공 토마 알렉스 뒤마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인종 차별의 뒷에서 벗어나 승승장구하다 다시 그 뒷에 걸려 허망하게 허물어져 간다. 저자는 '혁명의 거리' 파리의 생동감과 그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와 암투, 날로 잔인하고 포악해져 가는 민중들, 파벌간의 정투로 끊이지 않는 정변 등을 마치 현장에서 스케치하듯이 생생하게 그려냈다.

〈영림카디널·2만 원〉

▲인간의 우주= 맨체스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며 BBC의 유명 과학 다큐멘터리 진행자인 브라이언 콕스 박사는 이 책에서 인간의 기원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인문 과학적 시공간 탐험을 화려한 사진과 일러스트, 유려한 문체로 담아냈다. 저자는 일생 동안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 번쯤 해보게 될 문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시



작되었는가?'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어 과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질문으로 바꿔놓았다.

〈반니·2만9000원〉

▲골드의 물고기책= 이 책은 윌리엄 벨로 굴드라는 유명수학자를 중심으로 19세기 영국 식민지이자 유행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의 잔인한 현실과 문화적 기억을 창조해낸 기존의 역사에 반대하는 허구의 역사소설이자 실제 현실에 뿌리내린 환상소설이다. 작가 리처드 플래너건은 실화와 허구를 겹치고 쪼개면서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능수능란하게 허물었다가 되살리기를 주고받는다.

〈문학동네·1만4500원〉

샤를리 에브도 만평, 표현의 자유일까 혐오일까

불편한 미술관

-그림 속에 숨은 인권 이야기

김태권 지음



여성 차별, 인종 차별, 이주민과 장애인 인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격권과 동물권...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논의되어온 인권 문제들이다. 특히 요즘 대한민국엔 여성, 남성, 노인, 이주 노동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온갖 혐오 표현이 범람한다.

지난 2015년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이 테러리스트들의 습격을 받았다. 12명이 죽고 10명이 부상 당한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테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는 샤를리"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이 잡지는 2016년엔 지진에 희생된 이탈리아 사람들을 '토마토 소스에 버무린 파스타'로 묘사해 전 세계인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세상 모든일에 조롱을 퍼붓는 매체로 알려진 이 잡지는 풍자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잡지일까, 아니면 혐오 표현과 인종주의로 세상의 관심을 끌려는 잡지일까.

만화가 김태권이 다양한 미술 작품을 통해 우리 삶과 밀접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불편한 미술관-그림 속에 숨은 인권 이야기'를 펴냈다.

서울대에서 미학을 전공한 그는 '어린왕자의 귀환',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 등 자신만의 시각이 담긴 만화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가다.

이번 책을 기획한 인권위원회는 영화와 드라마를 소재로 한 김두식의 '불편해도 괜찮아', 만화가 10인이 함

께 펴낸 '어깨동무', 최훈의 '불편하면 따져봐' 등 생활 속 인권 문제를 다룬 책들을 꾸준히 출간해왔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고대 그리스의 조각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카라바조, 벨라스케스, 앤디 워홀의 작품과 작자 불명의 그라피티까지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미술 작품을 통해 인권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림과 관련한 풍성한 이야기와 함께 생활 속에서 겪은 경험담이 어우러진 글쓰기는 재미있게 읽힌다.

저자는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인권의 문제는 선과 악의 대립보다 '배려하는 생활', '무심경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게 크다고 말한다. 알과 모름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일상에서 접하는 일들을 한번 더 곰씹으며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부에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이 예술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는 지 다루고 가난과 결핍이 담긴 그림을 통해 '사회권'에 대한 논의를 들려준다.

2부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뤘다. 표현의 자유에 한계란 없는 지, 인종주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새롭게 불거지는 문제들이다.

〈창비·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공 한쪽도 나누어주세요=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운 친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나눔인 자기 기증, 조상들의 나눔, 쉽지 않은 않은 봉사활동, 조금씩 모아 큰 사람이 되는 모금, 기부, 미덕, 재능기부 등 나눔이란 무엇이고 어떤 나눔이 있는지, 우리는 왜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 나눔에 관한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겼다.

〈열다·1만1000원〉

▲어느 날 아침=성장의 첫걸음과도 같은, 이가 처음으로 빠지는 중요한 경험을 정감 있게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셸은 아빠와 함께 조개를 잡고, 생필품을 사러 항구에 가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기가 동생보다 컸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다. 이를 잃어버렸음에도 결국 비밀 소원을 이루는 셸의 경험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로 종종 실망할지라도 삶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중요한 지점을 전해 준다.

〈논장·1만2000원〉

▲언제 고자질 해도돼?=마일즈는 똑똑하고 착하지만 고자질 대장이다. 날마



다, 하루에 몇 번씩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 대장 마일즈는 집에서, 학교에서도 골칫거리다. 그래서 선생님은 '고자질 안 하기 대결'을 하기로 했다. 마일즈는 어떤 게 고자질이고, 어떤 게 고자질이 아닌지 알게 될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고자질을 하는 고자질 대장 마일즈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게 고자질이고, 어떤 게 고자질이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책이다.

〈책과콩나무·1만2000원〉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까지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 가능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온도차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특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외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무상 A/S

상명대학교/광명근로복지대학교/태백대학교/태백보건대학교/안성대학교/서원대학교/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